

1960년대 순수 참여 논쟁 연구

A Study on the Dispute between Pure and Participation Literature in 1960s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1960년대 비평사의 쟁점인 순수 참여 논쟁을 연구한 것이다. 논의 결과 한국전쟁 이후 50년대 비평은 현실 부재의 이데올로기적 비평임을 알 수 있다. 60년대 비평은 앞 세대의 논의를 이어받아 순수주의와 현실주의로 양분되었다. 이 시기 비평가들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순수주의가 언어에 친착한 비평으로 이어지고, 참여주의는 한국적 적용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 중반 이후 순수참여 논쟁에 이은 김현과 백낙청의 논의는 상상력과 역사의식에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I. 서론

한국문학에 있어 1960년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비평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이다. 60년대 비평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사적인 안목에서 행해지는데 주제론적 접근과 세대론적 접근을 들 수 있다. 주제론적 접근의 모범적인 사례는 김윤식이 대표격인데, 그는 당대 비평의 의미를 1960년대라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성격의 결과로 규정하고 그 중심에 순수·참여론을 놓고 있다¹⁾. 세대론적 접근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임영봉을 들 수 있다. 그는 60년대 비평의 단초가 50년대 후반의 비평가인 백철, 조연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문헌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과 논쟁의 이면을 해석하기 위한 푸코의 담론 적용은 접근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²⁾.

60년대 비평의 중심에 있는 순수·참여 논쟁의 전개과정과 문학사적 평가는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있다고 본다. 이 시기의 논의를 정리하면 전반기에는 서정주와 홍사중의 논쟁, 이형기와 김우중, 김병걸, 김진만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이어 후반기인 1967년에 있었던 김봉구의 〈작가와 사회〉란 글은 순수·참여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킨다. 이 논쟁에는 임중빈, 이호철, 이철범, 선우휘, 김현, 백낙청, 임현영, 염무웅이 가세하여 순수·참여론에 대한 일정한 진전을 보여준다. 순수·참여론의 대미는 이어령과 김수영 간의 ‘자유와 불온’ 논쟁이다.

본 논문은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사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비평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첫째, 세대론을 중심으로 한 논쟁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둘째, 논쟁 주체인 순수론자와 참여론자의 발화가 갖는 의미를 찾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본론

1. 현실 부재의 이데올로기적 비평

보수 우익문단의 대표자이기도 한 김동리는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좌익 비판에 앞장섰고, 그 덕으로 냉전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작가이다. 그는 일생동안 80편이 넘는 장, 단편을 썼으며, 문학을 종교처럼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는 문학을 가리켜 ‘생의 구경적 형식’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구경(究竟)이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이 영원히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³⁾에 친착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완고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동리의 문학사상은 50년대 후반의 비평가 김상일에 의해 계승된다.

조연현은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한국의 보수문단 최고의 권력자이자 이데올로그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위상에 비해 그의 비평이 갖는 의미는 미약하다. 조연현은 이승만 정권과 깊이 유착하면서 문학에 있어서 사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순수문학론을 본격 탐구한다. 그러나 사상도 역시 현실의 하 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그의 순수문학론은 현실의 풍부함을 제한하고, 문학의 영역을 좁힐 위험이 내재해 있었다⁴⁾.

2. 순수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등

전후세대에 의한 60년대 순수문학론의 재생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이는 이형기이다. 그는 60

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순수문학 옹호의 성격을 띤 평론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시인인 동시에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 비평의 기능은 미를 창조하는 일이다. 이러한 비평관에 입각해서 이형기는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에서 조연현과 김동리문학을 옹호하고 나선다. 이형기는 “순수는 오늘날의 이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참여론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순수문학은 ‘반정치주의 문학’일 수는 있어도 ‘비현실의 문학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정치적 목적의 수행을 위한 문학을 도구화하는 것”이 정치주의라면 순수문학은 그런 정치주의 문학을 거부하는 ‘인간성 옹호 문학’이라는 것이다[5].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형기는 문학의 목적성과 현실적 효용성을 부정하면서 현실참여론자들의 세계관적 기반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형기의 논리는 조연현과 김동리의 비합리적이고 반근대주의적인 문학관의 재연이라 볼 수 있다.

한용한 교수가 언급했듯이 60년대의 참여 문학론자들의 현실참여는 무산 계급에 바탕을 둔 실천적이고 사회변혁적인 목적성을 지는 것이기보다는 짜르트르적 의미, 즉 정치권력에 반항한다든가 부정부패의 사회를 고발하는 차원의 현실비판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다[6]. 냉전 이데올로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이철범의 현실참여 논의는 문학인들이 좌우파 이념논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당대의 비평가들이 문학의 현실참여를 부르짖다가는 자칫 공산주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암암리에 의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철범은 역사적 실존이라는 거창한 문제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통해 그 문제를 검증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그 아쉬움은 크다.

60년대 순수와 참여 논쟁은 김봉구의 <작가와 사회>를 통하여 논의가 다시 촉발된다. 김봉구를 통한 순수참여 논쟁은 한국적 적용의 문제에까지 진전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60년대 전반기보다 더 생산적인 논쟁이라 할 수 있다.

3. 상상력과 역사의식의 모색

김현은 그 어떤 비평가보다도 4.19세대의 문학적 주장을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한 세대의 전령과 같은 존재였다. 김현은 당시 구호비평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김현은 자신을 포함한 65년대 비평가들이 이 문제점을 극복할 것이라는 명제 위에서 문학비평을 감행하였다. 그의 <한국비평의 가능성>은 이른바 신세대 문학의 책무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목을 요하는 바이나, 새로운 세대의 고유한 특수성에 대한 논리적 접근보다는 수사적인 언어와 전대 비평에 대한 비판이 다소 냉전적인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김현과 달리 백낙청은 순수문학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서구의 진보적인 예술이론과 근대사를 바탕으로 한층 성숙된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 김현이 개인의 상상력을 사회 역사적 차원으로 확대 심화시켰다면, 백낙청은 한국사회와 문학이 독자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 착안하여 한국 문단의 후진적 요소를 극복할 대안을 민중이 아닌 작가와 지식인의 역사의식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백낙청이 주창한 새로운 비평의 가능성은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낙청은 이후에 역사의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이론적 갱신을 꾀어야 했고, 이는 곧 민족문학의 개진이라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III. 결론

문학의 본질, 기능을 둘러싼 순수·참여 논쟁은 60년대와 70년대 비평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순수문학론자들이 정치적 문학을 배제하였으며, 문학의 도구화를 문제 삼아 순수문학을 주창하였음을 논의하였다. 참여문학론자들은 짜르트르의 문학이론에 힘입어 문학의 본질적인 영역이 현실에 있음을 주창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통해 한국 문학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다가설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 [1] 김윤식,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서울대출판부, 1982.
- [2] 임영봉, 한국현대문학비평사론, 도서출판 역락, 2000.
- [3] 김동리 전집 편집위원, 김동리 전집7, 민음사, 1995.
- [4] 김명인, 비합리주의, 비극적 세계관, 그리고 파시즘, 실천문학62, 2001, 여름호.
- [5] 이형기,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 현대문학 2월호, 1964.
- [6] 한용한,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